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의 특성과 변화

김노을¹⁾, 유부원²⁾, 윤민지³⁾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공동체적 삶의 형태와 가족구조, 개인 삶의 방식 등은 이전과 매우 달라졌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혼밥, 혼술’등의 단어들도 생겨났을 정도로 가족구조의 형태는 변하여 1인 가구가 가족구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비혼 비율이 증가하고,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로 사업체에 나가지 않고도 개인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등 공동체적 방식보다는 고립된 형태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통합의 반대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 특히 삶의 유지에 중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립은 신체적 건강(질병률, 고혈압, 음주 과다, 사망률 등) 및 정신적 건강(우울증, 개인 삶의 질, 인지감퇴)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Cacioppo et al., 2006; Hawton et al., 2011; Steed et al., 2007; Holt-Lunstad et al., 2010; Pettigrew et al., 2014; 김숙영, 최경원, 오희영, 2010; 임은의, 문현정, 임세현, 2014; 손정연, 한경혜, 2012; 최은정, 2000. 국내에서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은 사회적 고립의 정도나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과 관계하여 종단적 분석자료를 통해 고립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며 그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통합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 10년간 사회적 고립의 정도가 그룹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고 그 그룹의 특성을 분석하려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2009, 2011, 2013, 2015, 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 있으십니까?’의 문항에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에 응답한 사람들을 (N=131,719)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도와줄 사람이 세 가지 모두 없는 경우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을, 경우별 사람 수 총합에 대해 음이항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사회적 고립이 될 확률이 높았으며, 가구원 수가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이 될 확률이 낮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의 확률은 줄어들다가, 특정 시점 이상부터는 증가하였다. 또한,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로 측정된 사회적 고립의 정도는 그 유형에 따라 결정요인이 달랐다.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들다가 증가하였으며, 남성이고 소득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을 할수록 증가하였다. 더 나아가 급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가구원 수가 부정적 영향, 교육수준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남성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필요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적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경제

1)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sunrise1516@yonsei.ac.kr

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zpdlak2104@gmail.com

3)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minji1877@naver.com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많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추가분석에서는 전체 응답자에서 유형별 응답자의 수가 년도 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고 전체 총합의 분포를 3분위로 나눈 다음, 사회적 고립의 로우/미들/하이 그룹에서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건강의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고립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건강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때, 일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각 유형에 맞추어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의 지난 10년간 유형별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함에 있어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